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게 제25257호】 주제 105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청년강국 주인공들의 총정의 선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원들의 건인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온 세상이 보란듯이 기연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유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의 지휘성원들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 편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에 나갈 마음의 신념을 불러 더 바짝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올해 청년절까지 끝낼것을 명령하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적극 도와주도록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결사판결의 낮과 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원들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극에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에 조선청년은 통령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년강국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여준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와보면 절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전력생산기지이면서도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을 이어가면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때 대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완공할것을 맹세다지였으며 그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

백두산영웅청년동력대원들은 박달나무도 얼어버릴 혹한속에서도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신념의 인제,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우고 전력생산의 자랑찬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

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완공하였는데 자신께서 주신 명령을 넘기거나 앞당겨 끝냈다고,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이처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고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후비대는 이렇

게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둘러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바라보기만 해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난다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까지 건설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기쁜것은 삼지연군의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자의 거인들로 자라났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로 가시는 길에 1호발전소 언저리를 부감하시면서 언저리가 불수록 멋있다고, 하나의 예술작품같다고, 언저리하루에 인공못과 공원을 특색있게 건설했는데 교양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전변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청년강국 주인공들의 총정의 선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가 일떠선 결과 백두대지에 대인공 호수가 생겨났다고 하시면서 호수의 이름을 <백두영웅정변호>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었던 기존 건설공법에 중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일떠세움으로써 당의 부름이라면 돌볼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손길아래 억세어진 영웅청년들의 자력자강의 무지주먹이 반공화국제제압살책동에 때달려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쳤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날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창당 첫 시기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용변으로 실증해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현실이고 실천이며 조선청년들은 당의 결심을 관철하는 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으며 그들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두 만나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그들에게 수고들이 많았으며 건강하기 바란다.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

부대로서의 기상과 본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면 우리 로동계급도 철야전투를 벌려 발전기를 비롯한 방대한 대상설비생산과 조립공사를 앞당겨 끝범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전체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라남관광기계련합기업소, 수력설비조립사업소를 비롯한 련관부분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자고 하시면서 준공과 관련한 지시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새로 수행하여야 할 전투 임무를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준비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완공된 발전소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답게 조국을 떠맡드는 억센 기동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물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반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포시대표회 진행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포시대표회가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백두산절세위원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하여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불같은 충정과 혁명적열의가 대표회장에 차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표회장들의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평화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업적을 빛내실화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표회에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시군구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다함없는 절로 마음을 담아 열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혁명적승리 우리 당의 명도인 김정은동지를 찬양하는 열렬한 찬사를 드리고자 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에서는 도당위원회사업이 통과되었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대표회에서는 김승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당 제6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주체의 가르침이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걸어왔다고 하면서 당의 명도인 김정은동지를 찬양하는 열렬한 찬사를 드리고자 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당조직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해 최후승리 대양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고 신의 주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바쳤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창성군을 비롯한 도안의 명도인적단위들이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들을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편지를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물러나고나가는 과정에 창성군과 태권군 은용협동농장, 흥진군 신양협동농장을 비롯한 명도인적단위들이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주적 권위성이 되느냐,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숙한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령정신을 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 신각같이 펼쳐 나사게 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온몸으로 꾸리고 우리 당의 인력정치, 광복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부리에 굳게 묶어세웠으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을 높이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수령의 유훈편지를, 당정책을위전을 힘있게 밀어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큰기쁨을 내걸게 되었다.

박원의 로동계급이 대항산소분리기를 만발데 대하여 주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빛내게 관철하고 간석지건설자들이 영웅적투쟁으로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킴으로써 세계앞에 조선을 걸설시킨 한사는 뜻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축산기지와 수산기지, 문화정서생활기지가 도처에 솟아나고 과학연구소사업과 산림복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조선로동당 함경북도대표회에서는 권승호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당이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빛나는 모임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함으로써 명도지와 맺은 정을 귀중처럼 간직 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혁명적당건설과 함께 산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혁명정교양장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축대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켰다.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중단없이 벌임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사소한 비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발휘되고있다.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원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당사회의 화력을 집중하여 지방별 성과를 거두었다.

성장의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학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주체혁명선계제를 완성하여 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경성애자공장을 비롯한 주요공장, 사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일병을 뿌리뽑고 과학기술과 장화발전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예외와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전바람을 일으켰다.

보고자는 70일전투기간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업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단위가 상반년계획,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것과 같은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성장의 불화, 라남의 불화를 지겨울리던 그 정신, 그 무지로 수령의 유훈편지를, 당정책을위전을 명철하게 밀어내갈 때 절망 못할 요소가 없다는것이 실천투쟁속에서 확증된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남포시대표회에서는 장양모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원들을 높이 모시기 우리 당은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과

가운데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내게 실현되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거창한 투쟁과 세기적변혁으로 수놓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정력적인 사상과 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위창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 경제건설과 혁명적투쟁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우신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주체혁명위업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론들은 수령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천리제안과 과학적대담성으로 일관되어있고 비정치적 독립적이며 변혁적인 전진전술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필승의 대장으로 되고있다.

주대 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탁월한 선군혁명명도로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기를 열어나가고 계신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옹성이 다지시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군, 선군, 선군, 선군, 선군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이르고계시기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내게 실현되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거창한 투쟁과 세기적변혁으로 수놓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정력적인 사상과 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위창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 경제건설과 혁명적투쟁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우신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주체혁명위업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론들은 수령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천리제안과 과학적대담성으로 일관되어있고 비정치적 독립적이며 변혁적인 전진전술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필승의 대장으로 되고있다.

주대 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탁월한 선군혁명명도로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기를 열어나가고 계신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옹성이 다지시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군, 선군, 선군, 선군, 선군

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 인민공화국, 핵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세우신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민족사적대공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내게 구현하시어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내주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수하고 세련된 명도인애로 자강적대담주의의 기치높이 전민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적으로 밀리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만리마사대를 펼쳐주시었다.

계속하여 주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에서 하늘처럼 거머쥔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도 정진도 군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라 한다는 인민대중대담주의를 절대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시어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물려주고 보살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머니품속에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날아날마다 꽃피고있다.

주대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궁무진 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고있고 하면서 당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

동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대사들에서는 전체 대표회참가자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열정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을 이룩한 명도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이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세계를 진감하는 특대사건들이 다제단으로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당의 현명한 명도가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세계를 주류로 복속시켜 내달리는 만리마사대를 펼쳐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열정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천제만세 높이 받들어모시 불마는 결의를 다지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1차(11차)인민공화국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표회에서는 토론자들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낸 대표자들을 선거하고 당직자들을 추천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포시 대표회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가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승리를 만반으로 이룩해나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장전 84돌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정 중화익민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인터넷토론회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인터넷토론회가 13일에 진행되었다.

네발 까프만두의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직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한공신담(광스-케인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내발정부 부수상 겸 내성, 어린이 및 사회봉사자, 최, 마이날리,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인 내발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트나 사키야를 비롯한 네발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를 그리고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토론회에서는 만주 라트나 사키야가 보고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인터넷토론회를 진행하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명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위업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적투쟁에서 력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조선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장화발전시키신 강현의 명장, 회세의 정치현모를이시다.

명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명도자를 중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모습은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이념위업의 사상과 인민사랑의 정기가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이다.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암살책들을 거부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 각 하께

존경하는 각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돌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저희들은 내발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인터넷토론회를 열고 자주적이면서 변혁하는 아시아전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사상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그리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열렬히 찬양하였습니다.

인류역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와 같이 세기를 이어가며 인민사랑의 정성과 호모를 만시는 그러한 위인들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자부시대의 개척자, 현명성 반제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하신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이시였습니다.

김일성주체사상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성취한것으로서 주체사상연구소가 주체사상 연구의 전진정도로 나라의 존엄을 떨치신 위대한 명도자의 숭고한 한성이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수천년세월의

안락을 제트리고 지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계자주위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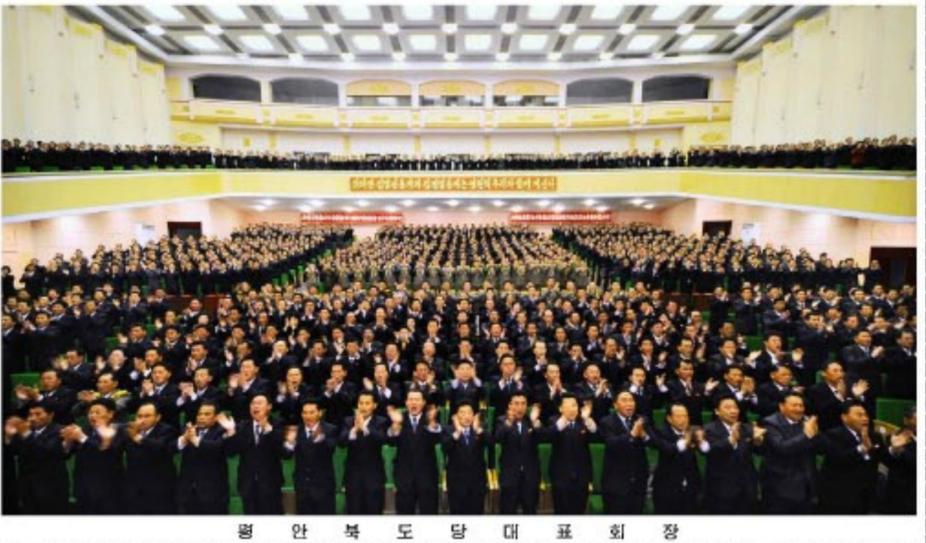
오늘 그 진리성과 과학성,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사상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으며 세계 5대륙에 급속히 전파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저희들은 각하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로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상과 명도, 풍모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인터넷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내발공신담(광스-케인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내발정부 부수상 겸 내성, 어린이 및 사회봉사자, 최, 마이날리,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내 발 기 자 협 회 위 원 장 박사 만주 라트나 사키야 2016년 4월 13일 까프만두



평 안 북 도 당 대 표 회 장

【조진중양통신】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과학전선의 전초병 - 만리마의 제 1 기마수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의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펼쳐고

총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과학전선이 무섭게 용을 쓰고있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우리가 잘살고 부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하고 비열하고 끈질긴 경제압박책들을 주체과학기술의 보검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 바로 그 맨 앞장에 영예의 김일성총장을 수여받은 3대혁명붉은기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가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날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입니다.》

우리 당은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혁명적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를 과학연구부문의 전형단위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만리마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우리의 과학전선에서 어떻게 창조, 창출되고있는가를 우리는 나라의 손꼽히는 과학연구집단지인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노동자, 인민들의 투쟁의 자욱자욱과 더불어 전하게 된다.

코요의 길에까지 차단봉을 내리고있었던 것이다.

주체조선의 과학자의 존엄을 결코 세계적인 우러뜨릴것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창조 하리라!

실상 조지침동무를 비롯한 금맹주조총합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연구소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고무와 지지밑에 무정형 합금미생산기술합력을 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봉로 마련할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결의하였다.

과학은 욕망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정말 해낼수 있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이 첨단기술의 요새는 정령하기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골 땀을 그대들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로 이어 세계를 더디고 오를 역적의 신념과 의지가 비면 반대하고 높은 목표들이 바로 이렇게 총정의 70일 전투기록장에 쏘아박혔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원수들의 경제압박책에 불구항을 낸 과학기술의 전초는 70일전투의 시작전에 이렇게 마련되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이 첨단기술의 요새는 정령하기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골 땀을 그대들 높이겠습니다.》

박해주신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남다른 용공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기계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과학탐구의 비정표를 다시 한번 심장속에 끈끈히 새겼다.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창조 하자!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행하되이생신설비 개발자들은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두번째 주인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평화적미생산설비의 시운전에서 단번성공이라는 승리의 첫 보상을 장쾌하게 울려퍼였으며 자동차야말에우는기계개발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열정을 합쳐 일제우기물을 95%이상으로 보장할수 있는 명인을 찾아내었다. 값비싼 수입설비의 자라달에우기물이 80~90%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식 창조달성이 안아온 또 하나의 자랑한 열매였다.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우리 식으로 개발창조하기 위한 간고하고 보람찬 탐구의 길에서 금맹주조총합연구집단에서도 혁명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원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적대세력의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특별한 문헌 하나, 장지 하나도 보기 힘든 속에서 이들이 우리 식으로 하나하나 확립한 무정형합금미생산공정에서 드러나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의 창조성을 과시하며 눈부신 무정형합금미생산설비로 나왔다. 이 성과에 도태하여 무부하수신에 종전의 변압기에 비하여 훨씬 적은 새로운 무정형철심변압기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이 분야에 과이 있는 전문

가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무정형합금미를 리용하여 각종 전자요소 등을 만들면 그 길이 훨씬 높아지고 부피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고, 이것은 전자공학, 자동화분야로부터 항공공학, 우주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질것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그 확대도입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00KW 전력발전기개발에서 기계구조설계의 설계제목을 담당한 실장단인 부교수 김광호, 박사 박은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 나무종자선별공정설비개발을 맡은 실장단인 최일국, 김순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과 여러 연구집단들이 이룩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바로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우러뜨리는 것을 내내느는 배향과 당백, 미상한 창조열정을 나타내었다.

그렇다. 우리 식 창조, 지력, 자력, 자강의 집안인 승리의 집, 영광의 집이다.

우리를 고무합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들의 책동이 구도에 이르고 있는 엄혹한 전초선에서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자력학자의 기치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맨 앞장에서 들고나가야 온 나라가 비약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질수 있다.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당백, 조국, 시대와 인민이 안겨준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사, 기마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총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무겁게 가다듬었다.

《애일시작!》 하는 그의 저력있는 첫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과학자들의 모습은 마치 질사전에 나선 화선용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그때로부터 3시간후, 무정형합금미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날의 결박에 따라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무정형합금미생산이 전부 끝나는가 마는가 결정되게 되었다. 동시에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과학적인 지표들을 다시금 확충하게 될 이 전투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70일전투목표수행에서도 그야말로 관건적인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잊고 크지 않은 헌장으로 모여들었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물론이고 생산에 필요한 모함급의 질지표를 모방하기 위해 밤새도록 함께 고심한 중앙실업분식소의 과학자도, 여기서 나오는 무정형합금미를 리용한 변압기제작을 맡은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도 있었다. 국가과학원의 당 및 행정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일군까지 있었다. 현상에서 는 승한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어 노후남비에 담긴 쇠물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액각로속에 부어지기 시작하였다.

짜-

로당 20cm의 속도로 질주는 무정형합금미가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그야말로 남의 기술을 믿고 어리석게 쓰시 대는자들의 만상을 보기 좋게 후퇴시켜 집단 기술의 요새를 침략하는 또 한번의 폐승의 순간이었다.

모여선 사람들은 환성을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금맹주조총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굳어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있었다. 드디어 채워지는 인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 앞에 허저오르는 흥분을 가라앉혀 누르는 질지의 열광으로 명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 잠은이 흘러내렸다.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기적적인 성과는 이렇게 창조되고있는 기계공학연구소 총정의 70일전투에서 과학연구부문의 전형단위로 떠올랐다.

전선은 우리의 불도끼로 끊어 하고있는 총정의 70일전투는 당에 대한 열렬한 충성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집단주의 정신이 짙게 들인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본보기과학연구집단을 창출하였다.

현재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는 70일 전투기록장을 앞당겨 펴놓아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고있다.

우리의 두뇌로 세계를 디디고 오르자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기계공학 연구소에서는 움직임직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평화적미생산설비의 자동차야말에우는기계 제조기술을 확보한데 이어 대형의 자동차개발에서 관건적인 고비의 하나로 제기된 성능높은 무공의 판질회열처리와 그 연구도입되었다. 금맹주조총합연구소에서 무정형합금미생산기술합력에서 이룩된 혁명적 성과를 사막들을 크게 기쁘게 하고 있다. 4월에 들어와서는 100KW용역력 기계의 기계구조설계와 평양에 기계공장의 평화적미생산공정설비에 필요한 두번째 평화기, 조선인민군 122호양모장 종자선별공정확립에 들어갈 많은 기계설비들, 능력이 큰 새 비섯공장에 설치할 여러대의 비질철단기와 기설공급기들이 현상으로 나왔다.

그 대부분이 당 제 7차대회에 드림 총정의 선봉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과학원적인 30여건의 중심전투목표에 들어있는 움직임직한 대상물이다.

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전례없이 높이 세웠던 올해 전투목표를 또다시 경건하고 보충하면서 연구소적인 70일전투목표를 총합하고 확정하면 일군들은 우러도 없지 않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기계공학연구소 소장인 공은파학자, 교수, 박사 최홍호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시기라면 아마 업무도 못했을까요. 그러나 무조건 절명해야 할 고지였습니다.》

그렇다. 반드시 해내야 했다. 온 나라에 지세차게 불어치는 국산설비의 열매를 이 기계설비연구를 전진으로 하는 기계공학연구소에 전례없이 방대하고 건전한 일군들을 때없이 제기하며뿐만이 아니었다.

이곳 과학자들에게는 현실의 이 절박한 요구에 앞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역적의 신념으로 간직하여 내 버려진 적이 없었다.

지나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어느 한 나라에서 열리는 무정형합금과 그것을 리용한 변압기와 관련한 학술토론회에 초청받았었다. 기술경제적의기 때문 큰 이 변압기제작에서 핵심기술이 바로 연구소에서 개발하고있던 금맹주조총합에 의한 무정형합금미생산기술이었다. 온도가 1,350°C 이상 되는 쇠물을 1ms동안에 300°C정도 급격히 온도를 떨어 우레가 20~30um정도 되는 미형태로 떨어내는데 이 무정형합금미생산기술은 야금공학, 규산염공학, 열공학, 정밀기계제작기술, 역학, 자동화기술을 비롯한 여러 기술공학과야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기술집합체로서 세계적으로도 기술대국이라고 지칭하는 불라 및 개 나라의 독점기술이 되어있었다. 우리 과학자들을 초청한 그 나라에서도 이 기술개발을 10년이나 국가중점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술한 투자를 해왔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남의 기술과 설비를 사들여 공정을 꾸리었다고 했다.

일찍이 이러한 원단기술을 개발할때부터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다시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3년만에 드디어 성공의 열매를 손에 쥔 우리 과학자들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위하여 곧 그 나라로 떠났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선 순간 그들을 기다린것은 학술토론회가 아닌 투쟁이었다. 그것은 주체주의의 통보였다. 그러나 얼마후 학술토론회가 일제대로 열렸으며 그 거짓통보에는 미세의 반공화국경제압박책에 편승해나선 그 나라의 부당한 처사가 잘려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지긋한 격분을 누를수 없었다. 잊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인민문제》를 떠돌아다녀야 할까? 떨치고있는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검은 마수는 이처럼 과학자들의 학술

이내러 자기의 두뇌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 개발창조의 길에 주저없이 뛰어 들었다.

《그 하나하나의 연구종자가 다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다. 원수들의 세계를 끌어부려 구상하고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신것이라는 자각이 이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이 담긴 그 소중한 연구종자를 다듬어낸 자들의 손으로 꽃피워야 한다는 이 나라 과학자로서의 숭고한 자각은 이들을 험치 않은 개마의 초형전, 창조는 생는길에 서슴없이 나서게 하였다.

평화적미생산설비의 국산화를 맡은 실장 박사, 부교수 안영일, 연구사들이 안영일, 리영조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기반한 창조성으로 핵심기술인 평화기의 스코프와 원동장치구조를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스코프의 수명을 3배이상 늘일수 있는 표면경화 기술을 창조도입하였다. 설계전투와 동시에 유압기장치를 비롯한 연구소야의 생산단위들과 최전선의 어느 한 공장에서든 일군들의 힘과 의지와 과학적 조직적사업과 과학자들과 원동공정공급의 창조적업제에 의하여 제작공정이 새롭게 완성되고 나라의 건장한 전력사업으로 조성된 불리한 조건이 과감히 타파되어 모든 부분설비들과 장치들의 제작전투가 힘적으로, 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식 창조는 불길은 100여대의 성능 높은 자동차야말에우는기계개발과 제작을 맡은 실장 김승성, 연구사 박성준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전투정에서 태출했다. 기계공학이라는 거리가 먼 분야이지만 자라의 생애학특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공공정, 양어단위들에 대한 전례없는 통찰이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기계구조방안을 완성하였다.

과거에 사색하고 탐구하던 미지세계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는 이곳 과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것은 지난 3월초 당에서 일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였다.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 및 기술관리공정을 견본모방했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히

기계공학연구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로동계급화된 과학연구집단이라고 말한다. 로동계급화된 과학연구집단! 이것은 결코 보통 수백~수백종에 수백~수천점에 달하는 부속품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덩치가 큰 기계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 이 연구소의 학문상특성과 관련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하고 단결력과 집단주의 정신이 제정해진 로동계급적모든모든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어 나아가는 기계공학연구소의 전체 연구집단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담긴 평가이다.

70일전투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군들을 안고있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시간이다.

연구소의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그리고 유압기구조장, 인조공정설비장을 비롯한 생산기계를 갖춘 연구실, 기술집단이 아니라 일군들의 《시간집행부》가 벌어지고있다. 누구나 내일내일이 따로없이 뛰어다니는 전투열을 열며 보아서는 누가 기계를 설계한 작사이고 누가 부속품을 짠 설계자이며 누가 필요한 자재를 해결했는지고 달려온 일군인가를 분간하기가 힘들다. 그야말로 모두가 마음도 열정도 하나가 되었다. 유압기구조장에서는 고급기능공인 공훈기계제작공 김대영동무와 현운상, 리활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과 과학자들의 지혜와 기술과 경험이 합쳐져 전문공정에서도 만들어 낼수 있는 100KW용역력발전기의 증속기가 나오고 현가장치를 매는 불기생한것으로 되어있던 기성판에 커머리 날개설치부분과 유압부분이 완성되어 나온것을 비롯하여 70일전투목표에 제시된 기계설비들이 연이어 나왔다. 중앙 기계공장에 보낼 두번째 평화기는 100% 이곳에서 제작되었다.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기적을 창조하려는 연구소과학자들과 로동자, 일군들의 드높은 열정은 떠돌이에서 진행되는 기계설비조립과 설치전투장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로동자들과 한데 어울려 힘겨운 밤을 지새우며 열정을 하고 조립도 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뜻을 담은 연구사가 아니라 《연구공》이라고 불렀다는 일화도 정연에게 평화적미생산설비를 조립, 설치하는 날날에

생겨났다.

이뿐이 아니다. 실장 부교수 안영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일민적실공으로는 가장하기 힘든 재료도 쉽게 구할수 있는 평양철강공정연구소개발에서, 실장 박사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각종 공정적 중합도입에서 무척 많은 실적으로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있다.

연구소의 많은 총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지원물자를 안고 현장으로 달려나왔다. 국가과학원 일군들을 비롯하여 온전과학자국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인민투쟁부문의 과학자사용 등 현판부문의 일군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연구소로 보내 여겼다.

우리는 여기에 금맹주조총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들려온 한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70일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밤 연구현장에서 소강 최홍호동무와 최광림씨가 힘 총원동무가 편이 들어 들어갔다. 남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고집이던 집단체제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는 과학자들, 그들속에는 가슴아픈 사연도 편이 들어 들어갔다. 나치로 알고있는 과학자도 있었고 당장 일민적투쟁 분야에 할 심한 병을 앓고있는 과학자도 있었다.

(우 연구소가 이들을 도와나서게 하자!) 부소장 공은파학자, 교수, 박사 백은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지도가 심화되는 속에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도 무어건 들켜가 이 연구집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민적 투쟁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군사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소 달기 하신 비행기사관군 조운동무

견본모방이나 개발창조나

70일전투기간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무정형합금미생산공정은 물론이고 지금 까지 이곳 과학자들이 분석도 없고 들은적도 없었던 기계설비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제작되어 나오고있다.

양적으로 방대한물이나나 특이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한 조건에서 단번치기로 성공시킨 자라들의 성과는 창조물들이다.

비상히 빠른 속도로 많은 기계설비들이 속속 완성되어 나오는것도 소위 자랑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공지와 자부심에 넘치게 하는것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우리 식 창조성, 견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로 더 차가되고있는 자력자강의 정신이고 배향이다.

제노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남의것을 거 의나 통째로 옮겨다놓는데 불과한 무정형합금미생산공정을 처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확립한것은 무말한 필요도 없이 자동차야말에우는기계, 평화적미생산설비, 나무종자선별공정설비, 야금공학정설비 등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모든 기계설비들이 다름아닌 이 곳 과학자들과 로동자, 일군들의 피와는 사색과 탐구,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설계 제작되었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이바지하는 움직임직한 기계 설비들을 수없이 개발제작해왔다. 그 길에서 6건이나 되는 무제에는 대상과제에는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이번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대상물들인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산림, 바닷재, 제약, 체육 등 공인 부문에서 쓰이는 기계설비개발은 해본적이 없었다. 그것도 실제로 하는데만도 중점적 한두달의 비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쉬운 방도는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대상물들인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산림, 바닷재, 제약, 체육 등 공인 부문에서 쓰이는 기계설비개발은 해본적이 없었다. 그것도 실제로 하는데만도 중점적 한두달의 비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쉬운 방도는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대상물들인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산림, 바닷재, 제약, 체육 등 공인 부문에서 쓰이는 기계설비개발은 해본적이 없었다. 그것도 실제로 하는데만도 중점적 한두달의 비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견본모방이나 개발창조나, 이렇게 갈림길에는 썼으나 사실 크게 참고가 될만한 견본도 없지 않았다. 있다면 려리나 절묘함이 적힌 사본뿐이었다. 값비싼 실물이 있다는것마저 그 핵심부분은 들여다볼수도 들여다볼수도 없게 만든 일명 《검은 함》으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생소하고 아름다운 연구개발과제들을 놓고 남을 쳐다본것이

하나가 된 집단의 위력 - 만리마속도

기계공학연구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로동계급화된 과학연구집단이라고 말한다. 로동계급화된 과학연구집단! 이것은 결코 보통 수백~수백종에 수백~수천점에 달하는 부속품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덩치가 큰 기계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 이 연구소의 학문상특성과 관련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하고 단결력과 집단주의 정신이 제정해진 로동계급적모든모든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어 나아가는 기계공학연구소의 전체 연구집단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담긴 평가이다.

70일전투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군들을 안고있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시간이다.

연구소의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그리고 유압기구조장, 인조공정설비장을 비롯한 생산기계를 갖춘 연구실, 기술집단이 아니라 일군들의 《시간집행부》가 벌어지고있다. 누구나 내일내일이 따로없이 뛰어다니는 전투열을 열며 보아서는 누가 기계를 설계한 작사이고 누가 부속품을 짠 설계자이며 누가 필요한 자재를 해결했는지고 달려온 일군인가를 분간하기가 힘들다. 그야말로 모두가 마음도 열정도 하나가 되었다. 유압기구조장에서는 고급기능공인 공훈기계제작공 김대영동무와 현운상, 리활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과 과학자들의 지혜와 기술과 경험이 합쳐져 전문공정에서도 만들어 낼수 있는 100KW용역력발전기의 증속기가 나오고 현가장치를 매는 불기생한것으로 되어있던 기성판에 커머리 날개설치부분과 유압부분이 완성되어 나온것을 비롯하여 70일전투목표에 제시된 기계설비들이 연이어 나왔다. 중앙 기계공장에 보낼 두번째 평화기는 100% 이곳에서 제작되었다.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기적을 창조하려는 연구소과학자들과 로동자, 일군들의 드높은 열정은 떠돌이에서 진행되는 기계설비조립과 설치전투장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로동자들과 한데 어울려 힘겨운 밤을 지새우며 열정을 하고 조립도 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뜻을 담은 연구사가 아니라 《연구공》이라고 불렀다는 일화도 정연에게 평화적미생산설비를 조립, 설치하는 날날에

생겨났다.

이뿐이 아니다. 실장 부교수 안영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일민적실공으로는 가장하기 힘든 재료도 쉽게 구할수 있는 평양철강공정연구소개발에서, 실장 박사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각종 공정적 중합도입에서 무척 많은 실적으로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있다.

연구소의 많은 총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지원물자를 안고 현장으로 달려나왔다. 국가과학원 일군들을 비롯하여 온전과학자국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인민투쟁부문의 과학자사용 등 현판부문의 일군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연구소로 보내 여겼다.

우리는 여기에 금맹주조총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들려온 한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70일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밤 연구현장에서 소강 최홍호동무와 최광림씨가 힘 총원동무가 편이 들어 들어갔다. 남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고집이던 집단체제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는 과학자들, 그들속에는 가슴아픈 사연도 편이 들어 들어갔다. 나치로 알고있는 과학자도 있었고 당장 일민적투쟁 분야에 할 심한 병을 앓고있는 과학자도 있었다.

(우 연구소가 이들을 도와나서게 하자!) 부소장 공은파학자, 교수, 박사 백은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지도가 심화되는 속에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도 무어건 들켜가 이 연구집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민적 투쟁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군사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소 달기 하신 비행기사관군 조운동무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이 22일 장시구역 창성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리명철 농군평당위원회위원장, 판계부, 농군평당위원회, 장시구역안의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농군평당에출신전대의 장시구역 창성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한 경축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합창 《김일성인수께 드리는 노래》, 시와 합창 《조선인민군가》, 녀성3중창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혼성중창 《무장으로 발발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중창 《말코브의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군사시상과 비범한 병군술로 자주 시범 무력전술의 빛나는 모습에 창조하시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 주신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주고 반세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 헌신연승을 이룩해오신 배두산혁명장군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주시는 기막힌 노래 《조국의 바다를 지영성하리라》, 《비행사의 노래》 등의 작품을 관람자들에게서 환상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민요연주 《월병야애 사파바다》, 녀성2중창 《오세요 나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무적관승의 위용을 지니고 혁명무력을 위해 단결한 수령님들께서 남긴 최의 애국유산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녀성5중창 《원군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 《운명의 손길》을 비롯한 종목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선군혁명영도로 자위적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지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추모의 정을 함평있게 형성하였다.

민요연주 《월병야애 사파바다》, 녀성2중창 《오세요 나의

공화국영웅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의

상봉모임 진행

조선인민군창건 84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의 상봉모임이 22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위원장, 녀맹일군들, 평양시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장시인 공화국영웅 김승운이 발언하였다.

그는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사적모임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들려주셨다고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군사시상과 탁월한 전법, 명활한 전략술들이 있었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를 자랑하던 남강도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 화의 나날에 이어서 평년에서 불비속을 품고 머나먼 최전선에서까지 나가서 우리 나라의 지형 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군사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소 달기 하신 비행기사관군 조운동무

참가하여 20여일동안에 5대의 직기를 띄우고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고 그는 감지율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은 오로지 모든 배두산현충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더욱 빛났다고 강조하였다.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 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출원상과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한 영예로운 순정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참가자들은 1950년대 영웅 전사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영도과 위대한 영웅의 력사를 끝없이 잊어버려 조산로동당 제 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4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2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무관단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최근대장 박영식동지와 함철상, 김명식

등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조선중앙통신】

